

“수험생 코로나 불안 없도록” 교육당국 방역 총력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 관리 방안

수능 특별 방역기간: 11월 19일 ~12월 3일 (수능일)



26일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 교습 자제, 수험생에게는 학원 방문 자제 권고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학원 내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

학원·교습소의 강사·직원도 교육부의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 권고

수능일 수험생 상황별 시험장 운영 계획

무증상	일반 수험생	일반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별도 시험장	별도 시험실
확진자	코로나19 진단받고 입원(치료) 상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격리통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별도 시험장	

자료/교육부 연합뉴스

광주교육청, 수능 전날까지 특별 안전관리...전남 상시 모니터링 확진자·자가격리자, 빛고을전남대병원·목포시의료원 등서 시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하면서 교육당국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비짜 긴장하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능일 하루 전날인 오는 12월 2일까지를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외부 개인 행사 자제, 시험장 안전 확보 등을 담은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수능 직전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학생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빛고을전남대병원을 특별 시험장(병실 2개)으로 지정했다. 올해 수능 시행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정 병원에서 치료와 함께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 특별 시험장에서는 8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

며, 이 경우 3인 1조의 교사가 감독관으로 나선다. 자가격리 학생은 119구조구급상황반이 해당 병원까지 이송한다. 전남교육청도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수능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의 학교 전파를 감시하는 한편 수능 전 시험장 53개교에 대한 특별 방역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53개 시험장 중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해남 등지의 7개교에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했다. 수능 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의 시험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목포시의료원·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에서 수능을 치르도록 했다. 이날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수험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11일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방통고 학생 381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했다. 교직원 21명과 이 중 수업을 진행했던 교사 7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통고는 2주에 한 번씩 등교수업을 한다. 이로 인해 전남여고 1·2·3학년 학생들이 지난 13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또 지난 10일 광양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등을 지도한 교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학생과 교직원 575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와 함께 A씨와 밀접 접촉한 학생 96명과 교직원 10명 등 106명을 자가격리조치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 16명도 자가격리자명단에 포함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수능 전 특별관리 기간을 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미 단계에 따라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빛 3호기, 2년6개월만에 재가동

한빛3호기(100만배급-가압경수로형)가 다시 발전에 들어갔다. 가동을 멈춘 지 2년 6개월 하고도 9일(919일) 만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역민 불안은 잦아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 3호기는 지난 14일 오후 7시14분을 기해 제 17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 17일 전 전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애초 한빛 3호기는 올해 2월 25일까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철근 노출 부위가 발견되면서 가동이 늦춰졌다. 한빛 3호기는 지난 2018년 5월 11일부터 시작된 계획예방정비기간(919일)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았다. 한빛원전 측은 이 때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24개의 공극, 184개의 철근노출부를 반영한 구조안전성평가, 해의 전문기관의 제3차 검증 등을 통해 격납건물 안전성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빛 원전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 홍진영 논문 표절 의혹 조사 요청

조선대학교가 가수 홍진영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진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조선대 대학원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대학연구윤리위원회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홍진영의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홍씨가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서 표절은 부인하고 있어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석사 논문 표절이 확인되면 석·박사 학위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



금남지하도가 입구 아트벽 변신중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도가 만남의 광장 출입구에 이색 벽화가 그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작가들이 중기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일환으로 출입구 7곳에 '아트벽 디자인'을 진행중이다. /최해배 기자choi@

“무등산은 숲” 난개발 대책 마련 촉구

환경단체, 아파트 신축 반대 서명도 지역 환경단체가 무등산 일대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등산 신앙개울 신축반대 시민연대’는 15일 “지난 14일 무등산 문민정사 앞에서 무등산 난개발에 대책 요구와 함께 무등산 신앙개울 신축 반대 거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시관리상식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무등산 일대 옛 신앙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신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무등산 인근 산수동 일원에는 주택건설을 위한 나무 고사 정황, 소태동 일원에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자연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신앙파크 호텔 부지 인근에 주거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며, 지산유원지에는 2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이 광주시에 제출되는 등 무등산을 둘러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22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11월 매주 토요일 무등산 일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오는 12월 시민서명을 광주시와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학교 방역물품 17일까지 배부 광주교육청

광주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2학기 안정적 등교수업을 위해 일괄 구입한 방역물품을 각급 학교에 오는 17일까지 배부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486교에 보건용마스크(KF94) 학생 1인당 6매, 손소독제 학급당 4개, 소독티슈 학급당 10개 기준으로 개별 택배배송으로 배부한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 학교 41개교에도 보건용마스크(KF94) 수험생 1인당 1매, 손소독제와 소독티슈는 시험실 당 각 1개 기준으로 추가 배부한다. 시 교육청이 이번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9억4500만원이다. 보건용마스크(KF94) 122만4000장, 손소독제 3만6680개, 소독티슈 3만6680개를 일괄 구입해 각급학교에 배부했다. 추후 낙찰차액을 이용해 소독티슈를 추가로 구입해 배부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지산1동, 포상금으로 청소년 지원

광주시 동구가 정부기관에 의해 우수 사례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을 다시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지산1동은 우수사례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으로 돌봄 이웃 청소년들을 위한 신발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했다. 지산1동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우수사례 포상금 300만원과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우수사례 포상금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자 뜻을 모았다. 특히 취약 계층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해 신발상품권을 구매했다. 아디다스 황금점에서도 뜻을 모아 상품권을 13매 기부, 동구내 취약계층 청소년 63명에 10만 원 상당의 신발상품권을 전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